

빛의 사람,

로컬

관계인구

조희정

더가능연구소

연구실장

1. 시선과 편견, 어두워진 로컬

피안의 아름다운 자연만 꿈꾸는 로컬 낭만론, 무조건 지방·촌·시골·변두리라고 깎아내리는 로컬 폼훼론, 행정구역으로만 딱딱따박 삭막하게 구분하는 로컬 행정론, 외국의 로컬만 멋있다고 우리도 넘죽 따라해야 한다는 로컬 모방론, 돈이 들어가면 나아질 것이라며 막연하게 지원금만 투입 하고 돈이 흐르는 과정에는 도통 관심 없는 로컬 시혜론.

외래어로만 표현되는 그럴싸한 로컬, 시골이나 비수도권과 같은 어두운 느낌의 로컬, 그러나 진짜 로컬은 ‘바로 여기’다. 서울도, 도시도 로컬이다. 삶의 공간은 어디나 로컬이다. 따라서, 다섯 개의 시선 모두 로컬을 정확히 울곧게 바라본 것은 아니다. 이런 시선들이 오랫동안 교차되며 로컬을 대상object으로 밀어버리고, 그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다.

외면과 무관심의 시간만큼 로컬에 대한 시선은 편견이 되어 차곡차곡 쌓였다. 나와 우리가 사는 그 모든 로컬에서 유독 대도시만 빛나고 그 외의 로컬은 어두운 곳인 것 마냥 밀려났다. 판데믹이나 각자도생이 도시의 삶을 옥죄어도, 왜곡된 편견이 그득한 사람들은 어둡고, 모르고, 낯선 로컬에서는 결코 오래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2. 대도시 탈주, 어둡고 낯선 로컬을 마음으로 선택하다

한편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꾸준히 탈주exit와 선택을 한다. 주어진 구조 속에서 진학, 취업,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움’을 찾아 능동적으로 살 곳을 선택한다.

나만의 침을 위해 한달살이를 한다는 책이 출판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다. 누군가는 로컬을 제대로 느끼려면 사계절을 겪어 보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진학과 파견이 아니어도 능동적으로 두 곳 살기 double local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지역살이는 이미 하나의 문화이자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귀촌은 곧 돈 많은 고령은퇴인구의 별장 짓기를 의미하던 ‘1세대’ 귀촌은 로컬은 곧 창업의 공간이자 기회라는 ‘2세대’ 귀촌의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도시 경쟁과 피로에서 숨통을 트려고 워케이션 workation을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로컬에서 창업을 해버리는 이들이 늘었다.

로컬 창업 초기인 2010년대만 해도 혈혈단신으로 독립서점, 게스트하우스, 카페, 베이커리로 1인 창업을 하는 것이 주류였다. ‘그 넓은 공간에서 무얼 하려고’, ‘밥은 먹고 살겠냐’, ‘그냥 좀 있다가 가겠지’, ‘공간이 너무 생소해서 들어가기도 겁나’라는 의구심, 호기심, 경계심 어린 시선 속에 외딴섬처럼 신중 외지인으로 취급받았다.

시간이 무르익어가는 지금은 창업 형태도 다양화되고 1인은 팀이 되었고, 팀을 넘어 주민과의 협업도 이루면서, 창업방식도 더욱 창의적이 되었다.

독립서점은 어느새 복합문화공간이 되어 사람들과 토론 하고, 영화 보고, 지역 브랜딩을 선도한다. 게스트하우스는 요가·트래킹·캠핑·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고 오는 곳이 아닌 문화교류의 장소가 되었다. 카페는 코워킹 스페이스, بوت틀샵, 갤러리로 확장되었고, 서핑샵에 서점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좀 온다하는 지역치고 고유의 수제맥주 브랜드를 하나씩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폐교와 폐공간들은 동물원, 술 주조장, 농원, 공연장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창작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교차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외지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선과 가치를 장착한 토착 주민들도 포함된다.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대도시와 로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연결되고 있다.

3. 로컬 관계인구와 만나다

살고 있는 주민만 로컬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로컬을 좋아하고 자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예 목적을 정해서 로컬로 떠나는 사람들이다. 목적지는 고향(U턴), 다른 로컬(J턴), 귀농귀촌지(I턴)이고 목적은 하나가 아니다.

대도시를 탈주한 사람들은 단지 박차고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낸 사람들이다. 그저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친구가 생기고, 로컬이 좋아진다. 여기라면 내가 좀 더 자주 오거나 더 오래 머물 수 있겠다 혹은 여기에서 아예 눌러앉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내가 아는 로컬이 나오면 친근감이 들고, 태풍이나 큰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들으면 현지에 사는 지인의 안부가 걱정된다. 로컬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응원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라도 돕고 싶어진다. 스며들 듯이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여러 곳들의 로컬리티(locality)를 받아들이게 된다. 로컬리티는 지리적 의미와 함께 지역 고유의 삶의 방식을 내포한 개념이다.

이것이 ‘관계인구’다. 관계인구는 오래오래 살고 있는 정주와 한번 휩 지나가는 관광 사이의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응원인구, 우호인구, 로컬의 팬이라고 불러봄직 하다. 함께인구,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탈주와 독특한 아이템만으로 로컬에서의 정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낯선 자로서 이주와 관계 형성의 시간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러나, 끝끝내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로컬의 빗장은 공손한 인사, 소소한 말 건넌, 신선한 노력의 반복 속에 어느 샌가 온풍과 같은 후리로 다가온다. ‘밥은 먹고 살겠냐’는 의구심이 ‘밥은 먹고 다니냐’는 염려로 돌아오고, ‘금방 있다가 떠날 것’이라는 의심은 ‘힘내’라는 따뜻한 격려로 다가온다. 잦은 마주침이 역명의 외면을 극복하게 되는 순간이다.

같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일상의 모든 과정은 같이 참여하고, 만들고, 실천하는 공정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물론 여전히 들고나는 사람에 대해 포용적이고 관대해지기 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로컬에 남아 있다.

4. 땅, 바람 그리고 물의 사람

일본에서는 로컬에 살고 있는 주민을 땅의 사람地の人, 외지인이나 관계인구를 바람의 사람風の人이라고 부른다. 땅과 바람을 이어주는 기관이나 사람은 물의 사람水の人이라고 부른다. 비단, 땅, 바람, 물 뿐이겠는가. 로컬에서 자라는 아이는 나무의 사람木の人, 화끈하게 앞장서서 리드하는 프론티어는 금의 사람金の人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마치 나무, 물, 불, 흙, 쇠로 이루어진 오행 같다.

겉에서 보는 로컬은 어둡거나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로컬에 사는 삶에는 이렇게 많은 층의 사람이 어우러져 있다. 오래 살았으니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시간축 중심의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 관계축 중심의 사고방식도 중요하다. 관계인구가 던지는 화두는 바로 그것이다.

어차피 인구 개념은 만들어진 개념이고, 수많은 인구개념 중의 하나가 관계인구다. 일본에서 2000년대 후반에 형성된 관계인구 개념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계인구 개념 역시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그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인구 5천 명의 일본의 작은 마을 가미야마에서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IR, Artist In Residence를 수십 년간 진행하고 있다. 저명한 예술가의 작품을 주민은 결과물로서만 관람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콘텐츠에 상관없이 로컬에 와서 생활할 만하고 로컬에 도움 될 만한 창의적인 전 세계의 창작자를 주민이 선발하여 초대한다. 만화여도 좋고, 웹툰이어도 좋고, 미술이어도 상관없다.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받고 창작활동을 하는 동안 예술가는 혼자만의 외딴 작업으로 작품을 완성하지 않는다. 주민과 함께 창작과정을 공유하고 그 결과물도 함께 즐긴다. 외지 예술가들이 그저 와서 머물고 개인적으로 자연만 느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예술을 하고, 주민들과 예술을 한다. 갤러리는 숲 속이어도 좋고, 오래되어 버려진 창고여도 좋고, 문 닫은 오래된 가게여도 좋다.

평소에 예술이나 외국인을 접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작품에 대한 설명회를 하며 함께 즐긴다. 유쾌한 어울림 속에 가미야마가 좋아져서 눌러앉은 예술가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수제맥주집을 연 경우도 있다.

가미야마는 지금 AIR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 셰프chef 인 레지던스, 작가writer 인 레지던스, 스타트업startup 인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5. 빛의 사람光の人, 로컬 아티스트

제주 로컬F&B기업의 이름 ‘섬이다閃異多’는 ‘빛나는 다름이 많은 제주’를 의미한다. ‘섬이다’ 창업자 김종현은 ‘빛날 섬뿔’이란 동떨어진 섬島이 아니라 한자 그대로 문에 사람이 서있듯이 ‘어두운 방에 사람이 들어올 때의 눈부심’이라고 한다. 멀리 있어 안보이던 이방인이 로컬로 들어올 때 그 경계에서 빛이 발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기업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AIR을 통해 로컬에 머물며 로컬의 자원과 사람을 발견하는 예술가를 땅의 사람, 바람의 사람, 물의 사람처럼 빛의 사람光の人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비단 AIR이 아니더라도 로컬 현장으로 찾아가 매일 살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로컬의 요소요소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누구나 빛의 사람이다.

이들은 어두운 로컬의 삶에 도전하는 프론티어frontier, 독자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촉매자catalyst, 단절된 것들의 연결고리를 잇는 연결자connector이자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교두보anchor와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한다.

고매한 전통적이고 웅장한 갤러리, 화려한 전시장, 높은 값의 작품과 공연이 박수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로컬에 살지 않아도 로컬을 마주하고 로컬 사람과 교류하며 다양한 창작과정을 통해 어둡고 보이지 않던 로컬에 빛을 부여하는 활동 역시 문화이고 예술이다. 예술은 감상하는 것, 구매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향유하고, 모두가 창작할 수 있을 때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므로.

조희정

조희정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서, 6년째 로컬을 돌아다니며 연구하는 정치학 박사이다. 주로 새로운 가치와 방식을 지향하는 로컬 창업자에 관심이 있지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업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로컬과 청년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더가능연구소의 연구실장도 겸임하고 있다.